

2017년 12월 27일, 한림읍 강구리 강구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양신생(여, 1941년생 한림읍 강구리)

- 줄거리: 옛날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. 하루는 시아버지가 말을 물 먹이러 가다가 길 지나는 사람이 길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말을 안 판다고 하였다. 그것을 집에 와 며느리에게 말했더니, 며느리는 항아리뚜껑이 깨진 것을 말하는 줄 알고 화를 냈다.

[제보자] 옛날에 메누리는 귀 막고, 시아방하고 둘이가 사는데. 옛날엔 장독을 이렇게 장독대에 그 저 장테 헹 덮지. 장테라고 허지. 장항 뚜껑을. 이렇게 덮으고 헹 사는 시절이었는데. 그 하루부지도 귀 막고 메누리도 귀 막았는데. 하루부지가 물, 말 물 맥이레 갔는데 길 지나가는 사름이 길 물으라고
“하루부지. 이 길로 가면 어데로 가요?”
허난. 하루부지는
“이 말 안 풀아요.”
또 재차 물었어.
“하루부지. 이 길 어데 가요?”
“이 물 안 풀 데니깐.”
귀가 막으니깐 통과 안 됨 온 거지. 집에 와서 메누리 보고
“어떻 날이 이상한 날이다. 이 물 안 풀肯 헤도 막 질 넘어가는 사름이 물 풀 렌 허는 사름만 잇어라.”
경 허난. 또 메누리는 귀가 막은 거지. 시아방은 그 말 헌 거지. 자기는 아마 그 장뚜껑 그 장테를 벌려난 기억이 잊인 모냥이라. 메누리 허는 말은
“아이고, 아부지는 어느 옛날에 장테 벌른 거 가정 지금??지 그 말만 헷우과?”
그런 말도 들어보고. (웃음)

- 핵심어: 귀, 메누리(며느리), 시아방(시아버지), 물(말), 길, 장항, 장테(장태), 장독